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인플레 상승 · 더딘 고용에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 ◇ (초점)-제동 걸린 은행권 리보 전환 논의.. 이자교환주기 이견에 담합 이슈까지
- ◇ (시장진단)-연일 급등하는 조선 업종 주가..카타르 발주 등 환시 수급 영향도 주목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머제스틱 극장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진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브로드웨이 공연을 재개하는 공연을 끝내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카이트린 옥스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29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68.6	0.7%	-7.0%	+6.5%	유로	1.1561	-0.7%	-5.4%	+8.9%
100엔 대비	1,030.0	0.7%	2.1%	+1.1%	엔	114.00	-0.5%	-9.4%	+5.2%
유로 대비	1,357.8	1.0%	-2.3%	-2.3%	위안	6.3918	0.0%	2.1%	+6.7%
위안 대비	183.32	0.6%	-9.3%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819.56	0.4%	17.0%	+7.2%
코스피	2,970.68	-1.2%	3.4%	+30.8%	나스닥	15,498.39	2.7%	20.3%	+43.6%
코스닥	992.33	-0.3%	2.5%	+44.6%	S&P500	4,605.38	1.3%	22.6%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47.46	-2.0%	-2.2%	+19.8%
국고채 3Y	2.103%	21.4bp	112.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405%	20.2bp	107.0bp	-14.5bp	미국채 2Y	0.501%	4.2bp	38.0bp	-144.0bp
국고채10Y	2.575%	16.4bp	86.2bp	+3.0bp	미국채 10Y	1.561%	-7.7bp	64.9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83.57	-0.2%	72.2%	-20.5%	한국 5Y	18.8bp	-0.3bp	-3.2bp	+0.1bp
금(현물)	1,782.81	-0.5%	-6.0%	+25.0%	일본 5Y	18.5bp	-0.1bp	3.5bp	-4.5bp
TR상품지수	3,274.64	0.2%	22.2%	+7.8%	중국 5Y	46.0bp	-0.6bp	18.0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1 월 1 일(월)>

- 산업부, 10 월 수출입 동향(09:00)
-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TF 개최(12:00)

### <2 일(화)>

- 통계청, 10 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1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08:00)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런던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 개최(08:00)
- KDI, 현안 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12:00)
- 한은, 10.12 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 <3 일(수)>

- 한은, 10 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고위급 인사 면담(09:00)
- 금감원, 정은보 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최(10:30)
- 금융위,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12:00)
- 통계청, 9 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4 일(목)>

- 기재부, 1 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KDI, 현안분석 '신용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12:00)
- 통계청, 8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2:00)

### <5 일(금)>

- 한은, 9 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08:3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1 월 1 일(월)>

- 일본 10 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10 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미국 10 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22:45)
- 미국 9 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10 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자정)

### <2 일(화)>

- BOJ, 9 월 21-22 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08:50)
- RBA, 금리결정 회의 (12:30)
- 유로존 10 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18:00)
-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결정 회의 (~3 일)

### <3 일(수)>

- 중국 10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9 월 실업률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10 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10 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9 월 내구재주문 수정치·공장주문 (23:00)
- 미국 10 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자정)
- 일본 휴장

### <4 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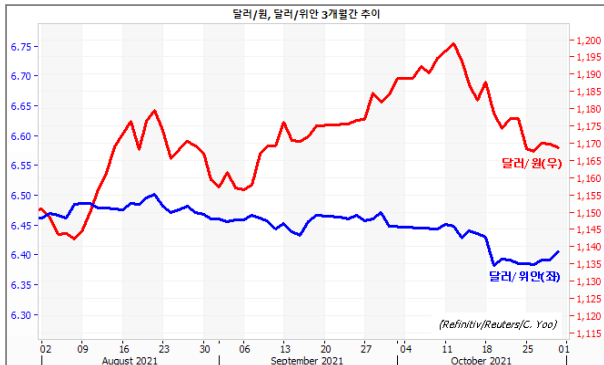
- FOMC, 금리결정 발표 (03:00) 및 연준 의장 기자회견
- 노르웨이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18:00)
- 유로존 10 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18:00)
- 유로존 9 월 생산자물가 (19:00)
- 미국 10 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영란은행, 금리결정 발표·통화정책 회의록 공개·통화정책 보고서 발행 (21: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3 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1:30)

### <5 일(금)>

- 일본 9 월 가계지출 (08:30)
- RBA, 통화정책 성명 발표 (09:30)
- 유로존 9 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10 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실업률(21:3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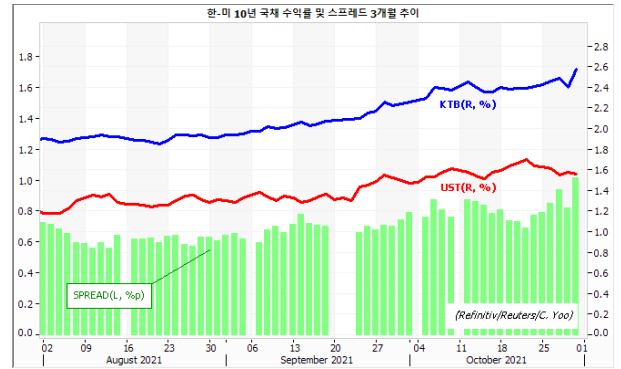
##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 이벤트를 소화하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60-1190 원이다.
- 한국 10월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중국과 미국의 10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수와 미국 10월 비농업부문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 하지만 이번 주는 한국 시간 4일 새벽에 나온 연준 정책회의 결과가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는 기정사실로 선반영돼 있어 물가 판단과 함께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하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속에서 예상보다 연준의 매파적 색채가 강하게 풍겨질 수도 있어 회의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 연준 회의를 전후로 글로벌 채권 금리와 달러 움직임이 관련인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은 보폭을 언제든 키울 수 있다.
- 이번 주는 각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화도 이같은 흐름에 함께 휩쓸릴 수 있는 만큼 위·아래 보폭을 넓혀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반영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을 발표할 경우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관건이다.
- 지난주 크레딧물의 거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통안채 시장마저 수렁에 빠지면서 단기물을 둘러싼 혼란이 커졌다. 영연방 국가들의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과 함께 글로벌 커브 플래트닝이 두드러진 것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 당장 현물 채권 손실이 큰 곳들이 국채선물과 이자율스왑(IRS)으로 '묻지 마 헤지'에 나서면서 시장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됐다.
- 정책 당국의 미적지근한 행보도 충격을 키웠다. 한국은행은 통안채만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정도의 통안채 수급 개선안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11월 국채 발행계획'을 선보였다. 기재부가 워낙 '과감한' 발행 물량 축소를 공언했기에 10월보다 2조 5천억원 줄어든 규모의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 특히나 이번 주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내 테이퍼링 실시 발표가 확정적이라는 점은 이미 가격에 녹아 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입장,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간 시차에 대한 힌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장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이 확인될 경우 주식이든 외환이든 채권이든 큰 폭의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가뜰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장금리가 폭등한 상황에서 이같은 변동성 예고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 주 후반에는 미국 노동부가 10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10월 고용 보고서가 FOMC 회의 결과와 결을 같이 할 경우 파괴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자.

**(초점)-인플레 상승 · 더딘 고용에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워싱턴, 10월 28일 (로이터) -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딘 고용 속에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인내심과 강한 소비자 수요로 인한 리스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공급 병목현상,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에 따른 가계 소득 급증 영향에 전년비 상승률이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대체로 금리를 조기에,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판단은 사실상 속도에 달려 있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병목현상과 같은 공급망 문제가 2조달러로 추정되는 가계의 초과 저축본이 소진되기 전에 사라질지, 그리고 이것이 최근 물가 급등세가 대중의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반영되기 전에 나타날지가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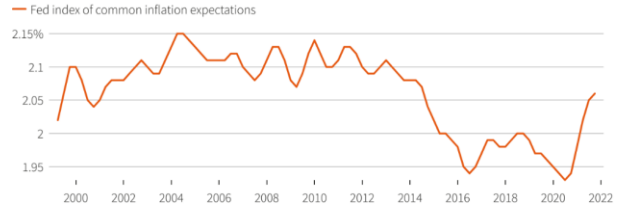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전망은 이미 상승하고 있는 듯하다. 연준 고위 관리들이 추적하는 연준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는 전례 없는 기간인 5분기 연속 상승했고, 현재 2.06%로 연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으며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올랐다. 지난 26일 발표된 컨퍼런스보드 10월 서베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7.0%로, 2008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역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전망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이른 시기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Inflation expectations ratchet higher**

A yard-stick employed by Federal Reserve policymakers to gauge inflation expectations - a touchstone in their approach to understanding price pressures and keeping them in an acceptable range - has shown a sharp increase as the economy has reopened after 2020's coronavirus lockdowns.



Note: Source: U.S.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랜달 퀘일스 연준 이사는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는 전례 없는 재정 부양책으로 늘어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듯한 공급 압박에 맞춰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 인플레-고용 목표 간 긴장감

연준은 다음 주 정책회의에서 2022년 중반까지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지 여부는 지금부터 내년 여름 사이의 인플레이션 추이, 기대 인플레이션, 고용 증가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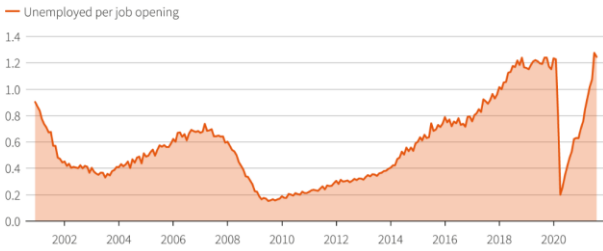
코로나 19 백신이 없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1년 전만 해도 차입금리 인상은 수년 뒤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연준 위원 단 4명만이 2024년 이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은 연준 위원 절반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 Unemployed to job openings

The number of job openings reported by firms in federal surveys is now greater by about 20% than the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jobs.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긴장'에 주목해 왔다.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지난 4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이 틀렸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질문에 "연말"이라고 밝혔으며 크리스 윌러 이사도 지난주 같은 시기를 언급했다.

피터 아일랜드 보스턴칼리지 경제학 교수는 "우리는 변곡점에 있는 듯하며 과거에 겪었던 일부 문제가 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연준 위원들은 과거 경기 사이클에서 금리를 너무 이른 시기에 인상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전과 같은 선택은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성공은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등이 과거처럼 작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어도 현재 팬데믹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전제가 충족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 Inflation makes a comeback

After some initial hesitancy over arguments that this year's bout of inflation may be temporary, investors have shifted gears and now see stiffer price pressures as a more lasting phenomenon. The break-even rate of inflation for 5-year TIPS is now the highest since 2005.



Note: Figures reflect inflation expectations embedded in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TIPS)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 과거의 경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지출은 실업이 만연함에도 연방정부 지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났던 2020년과 2021년 초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출 감소에 따라 수요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팬데믹 프로그램이 남아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지출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가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연구는 이미 지출이 이뤄지고 구인 수가 구직자 수를 넘어선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경제는 이미 과열 상태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자료와 조사에서도 연준 관리들이 생산 증가 및 물가 압력 완화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노동자 및 일자리 증가가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헤드라인 실업률이 4.8%이고 2020년 2월 이후 사라진 일자리가 약 500만개라고 하지만 애틀랜타 연방은행과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집계한 통계는 노동시장이 일반적으로 이 지표들에 반영된 것보다 더 타이트함을 보여준다.

## Kansas City Fed labor index

A Kansas City Federal Reserve index combining two dozen labor market variables is near pre-pandemic levels, with momentum for continued improvement.



Source: Kansas City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사이트 인디드에 따르면 현재 '급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 가능한 현금이 충분하거나 일을 하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이미 일을 덜 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면 (노동시장) 정상화가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연

구에 따르면 작년 '초과 은퇴자'는 약 300 만명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연준 관리들은 일자리와 노동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회복할 가능성을 점점 열어두고 있는 듯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단 해리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지난 경기 사이클에서 크게 데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금리는 인상됐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자리는 계속 논의 대상이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가계의 구직 성향이 바뀌었을 가능성, 팬데믹에 따른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 등 "연준의 입장은 여러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초점)-제동 걸린 은행권 리보 전환 논의..이자교환 주기 이견에 담합 이슈까지 '첩첩산중'**

서울, 10월 29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달러 리보 익일물과 1·3·6·12개월물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파생상품 계약의 중단을 앞두고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 은행권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가뜰이나 내년 1월로 예정된 달러 리보 연계 거래의 중단 일정이 촉박한데 이자교환주기 등 시장의 거래 기준안을 놓고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간 이견차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합 이슈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은행연합회가 논의 과정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한계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 이자교환주기 논란에 제동 걸린 리보 전환 논의**

업계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스왑담당자들은 지난 27일 모여 CRS 시장에서 달러 리보금리를 대체하기 위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까지 리보금리의 대체 상품부터 거래구조, 이자 교환 주기 등 시장의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리보금리를 대체해 SOFR(국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OIS(Overnight Index Swap, 하루 짜리 초단기 외화금리)를 가중평균해 사용하는 것 등 여러 부분에 대한 합의가 순조롭게 이어졌지만 이자 교환 주기를 3개월로 하느냐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베이 결과로는 이자 교환 주기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3개월로 하는 쪽이 우세했지만 참석한 일부 국내은행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론이 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어정쩡한 결론만 낸 채 향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A 국내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자교환주기가 가장 큰 이슈인데 글로벌 표준이 3개월이다 보니 서베이 결과도 3개월이 우세했다"며 "다만 SOFR 금리를 가중평균해 3개월 금리로 만들면 이게 마지막 날에야 결정되니 번거로운데 이걸 1년에 네 번이나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내은행들이 이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교환주기는 중요한 이슈도 아닌데 추가 논의를 하면서 시간만 더 지체될 듯하다"며 "원래 지금쯤 시장의 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11월부터는 거래를 시작해야 내년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텐데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장 주도 거래 기준 논의가 담합(?)..발빠는 은행연합회**

문제는 시장의 자발적인 리보금리 전환을 주도해야 할 은행연합회가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 법률지원팀이 내부 검토한 결과 시장참여자들이 직접 거래 관행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담합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시장에 공을 떠넘긴 상황에서 은행연합회가 발을 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논의가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며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리보금리 전환 논의에 힘을 쏟을 여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B 국내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이야기는 은행들만 모여서 거래 관행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담합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금융당국에서 이 논의를 주도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대체지표금리 개발 때처럼 대체지표금리개발반 산하에 시장 참가자그룹을 만들고 시장 관행을 정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시장에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 국내은행 관계자는 "27일에 워낙 충격적인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느라 리보 회의엔 참석을 많이 못했다"며 "다들 멘탈이 붕괴한 상황이라 이 문제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선 리보금리 스크린 제한 조치도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에도 6개월 정도만 리보금리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금융감독원의 내부모형 승인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SOFR을 준거금리로 하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가 현안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존 리보금리 기반 포지션의 헤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리보금리와 SOFR를 기반으로 두 개의 시장이 병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D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당국이 어떻게 나온다 해도 내년부터 SOFR와 리보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크로스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프론트데스크는 어마어마한 베이스 리스크를 안고 가야할 것"이라며 "새로운 거래의 기준안이 어떻게 결정되든 기존 딜에 리보금리가 포함돼 있으면 리보금리로 헤지해야지 베이스로 헤지하는 건 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거래를 폴백(fallback) 조건에 맞춰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신규 거래의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진단)-연일 급등하는 조선 업종 주가..카타르 발주 등 환시 수급 영향도 주목**

서울, 10월 28일 (로이터) 이지훈·박예나 기자 -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대감이 확산되며 최근 조선 업종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외환시장은 이에 대한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일 국내 대표 조선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최대 4% 이상, 삼성중공업 주가도 최대 1% 이상 오르면서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이번 주 들어 현재까지 각각 약 14% 급등했고, 삼성중공업 주가는 약 8% 상승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주간 약 7% 오른 한편, 현대미포조선 주가도 17% 급등했다.

#### ▲ 조선 업황 호조 기대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연이어 선박 수주를 따내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 수주 기대감이 주가 급등에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달에만 총 4.7조원 상당의 수주 계약을 공시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선박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일조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에 따르면 시황 전문업체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하는 신조선가지수(Newbuilding Price Index)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6월 카타르에너지공사(前 카타르 석유공사, QP)와 체결한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슬롯계약에 대한 본계약 및 발주 기대감도 최근 주가 급등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주말 카타르 방문 동안 카타르에너지공사 CEO를 겸임하고 있는 알 카비 국무장관을 만나 LNG 운반선 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노스필드 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LNG 선박을 포함해 향후 우리 기업의 카타르 LNG 선박 수주에 있어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노스필드 개발을 통한 LNG 생산능력 확충 및 공급 확대를 위해 LNG 선박 발주를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 조선 3사와 LNG 운반선 슬롯 계약을 작년엔 체결한 바 있다.

#### ▲ 외환시장 관심도↑

이같은 카타르 수주 성사 여부는 외환시장참가자들도 눈여겨보는 수급 재료다.

이달 달러/원은 1200 원을 터치한 뒤 1160 원까지 급하게 되밀리는 등 급등락을 경험한 이후 현재 방향성 탐색 구간에 놓여있다.

지난 18일 삼성중공업이 유라시아 지역 발주처와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 기자재, 설계 공급계약을 2조원에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후 달러/원 환율은 큰 폭 하락했다. 이렇듯 외환수급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조선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자 카타르 수주가 임박한게 아니냐는 전망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조선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호재가 먼저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 본계약 이후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주가 예상된다"면서 "올해 발주 규모는 조선사 전체적으로 12척 내지 13척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 6월 슬롯예약 당시 대략적으로 정해진 가격 대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을 선가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타르 수주가 성사된다고 해도 발주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제 환시 수급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는 있다.

아울러 녹록지 않은 대외 리스크 여건을 감안할 때 해외 선박 수주 영향만으로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팽팽하게 유지됐던 외환수급 긴장감이 다소 완화됨에 따

라 대외 불안에 따른 역내 수급 버퍼가 생길 여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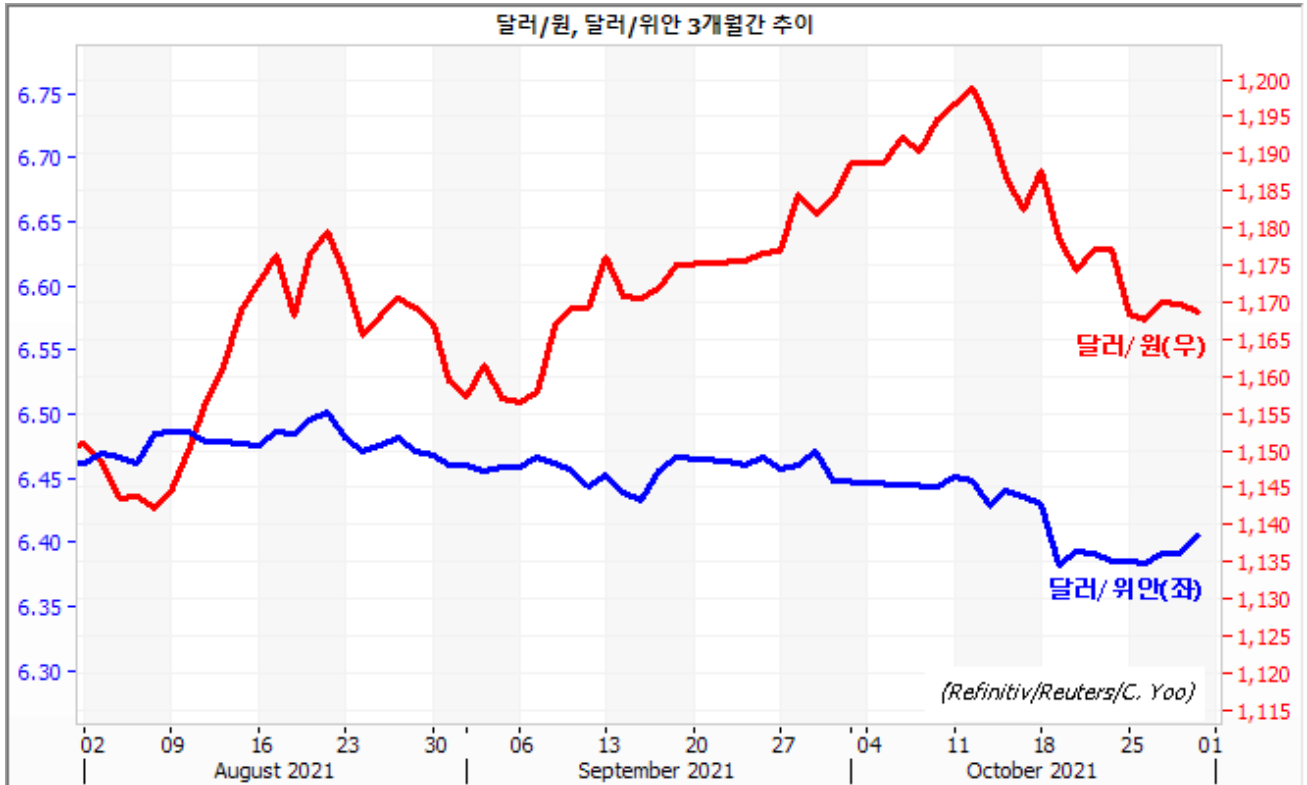
오후 1시 33분 현재 현대중공업 주가는 2.6%, 대우조선해양 0.4%, 삼성중공업 0.5% 각각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는 0.2% 상승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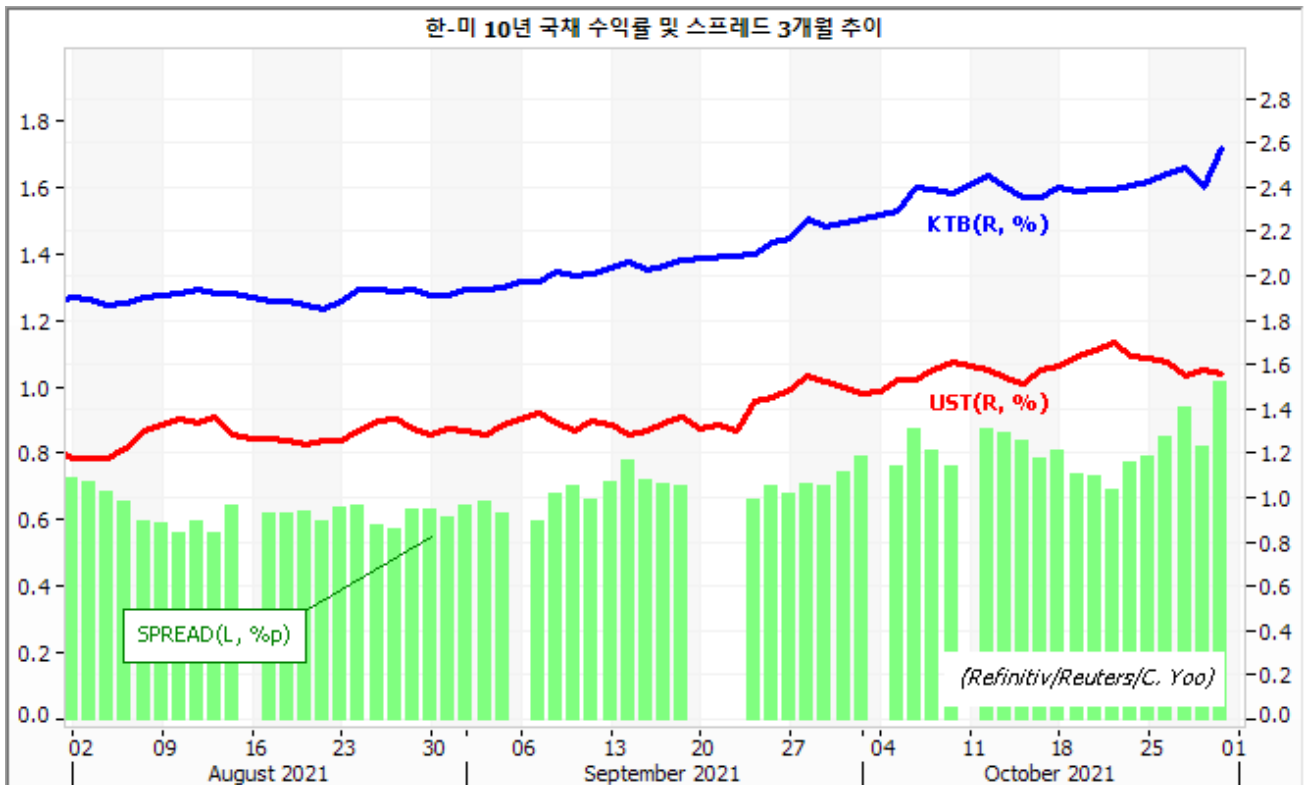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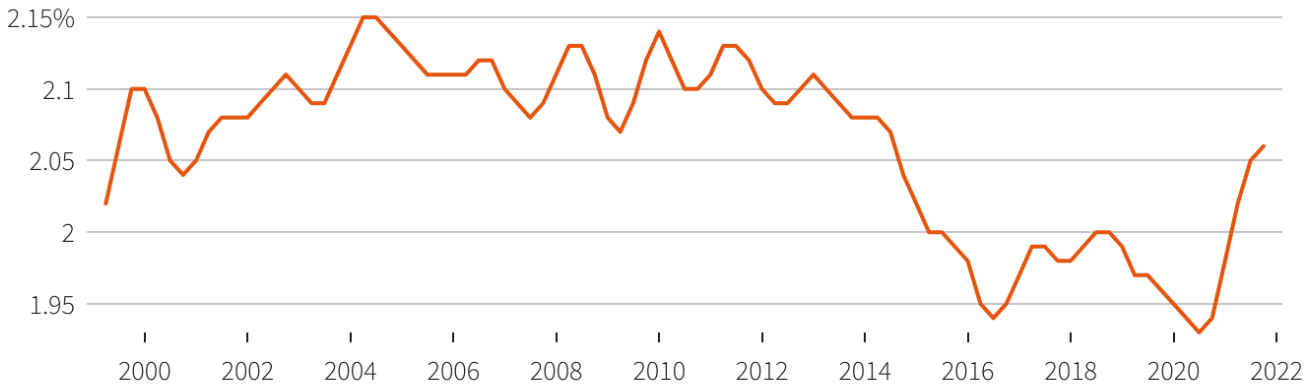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Inflation expectations ratchet higher

A yard-stick employed by Federal Reserve policymakers to gauge inflation expectations - a touchstone in their approach to understanding price pressures and keeping them in an acceptable range - has shown a sharp increase as the economy has reopened after 2020's coronavirus lockdowns.

— Fed index of common inflation expectation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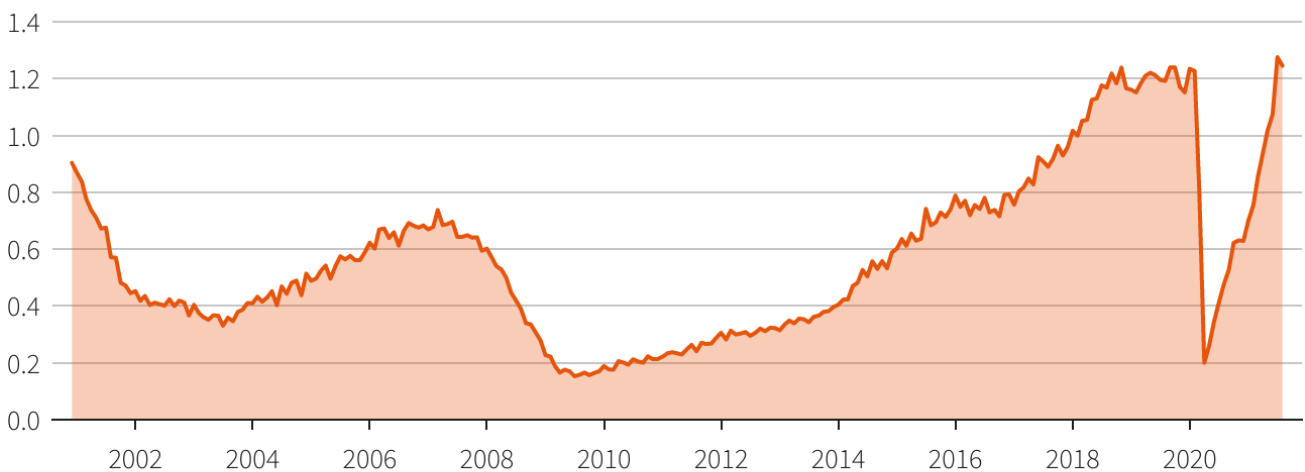
Source: U.S.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nemployed to job openings

The number of job openings reported by firms in federal surveys is now greater by about 20% than the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jobs.

— Unemployed per job op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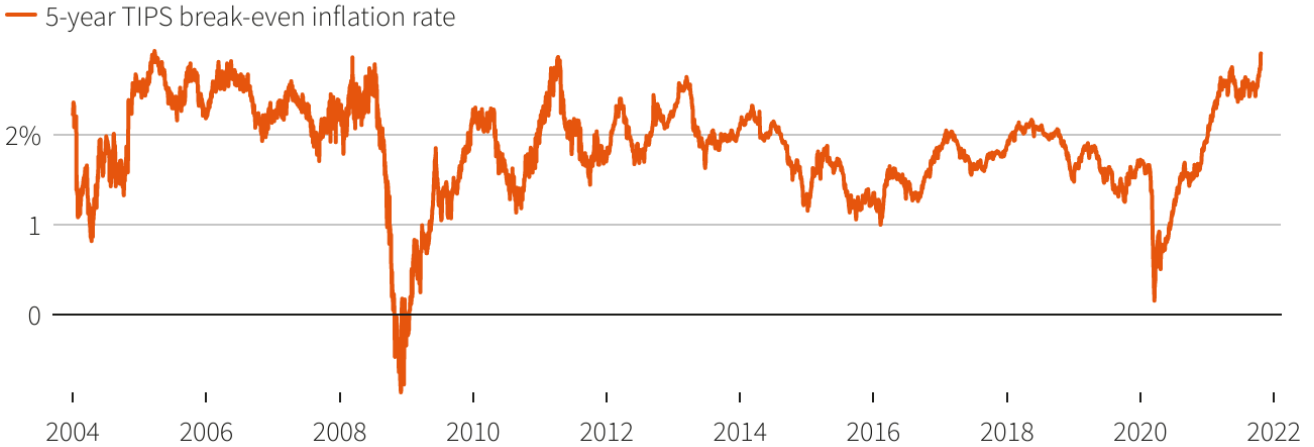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Inflation makes a comeback

After some initial hesitancy over arguments that this year's bout of inflation may be temporary, investors have shifted gears and now see stiffer price pressures as a more lasting phenomenon. The break-even rate of inflation for 5-year TIPS is now the highest sinc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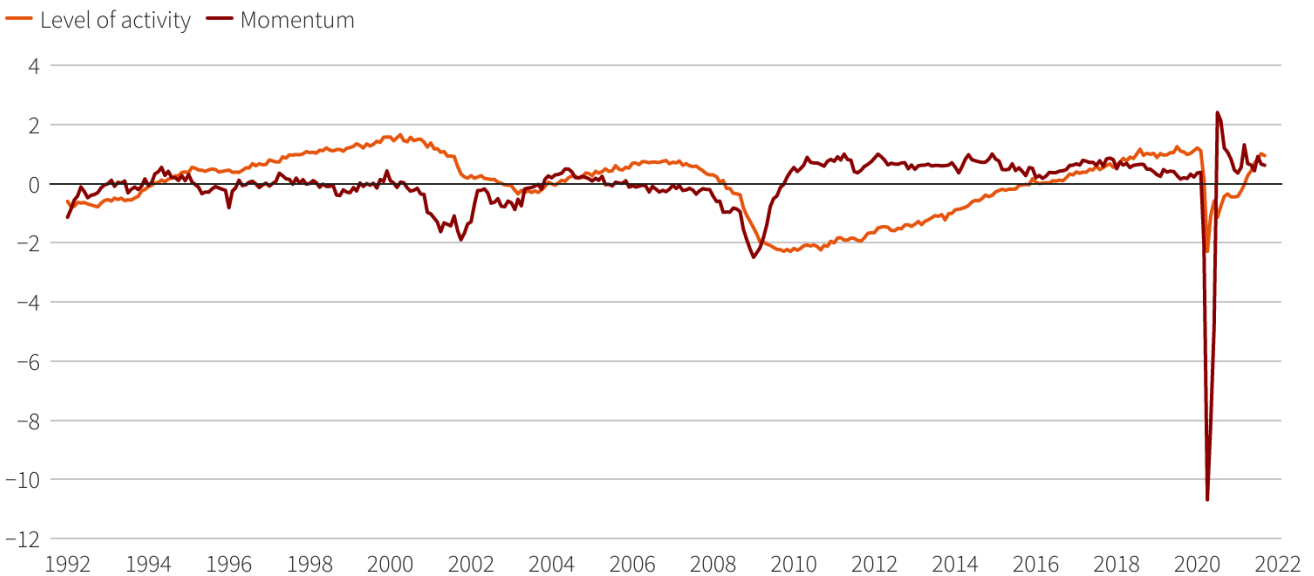


Note: Figures reflect inflation expectations embedded in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TIPS)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Kansas City Fed labor index

A Kansas City Federal Reserve index combining two dozen labor market variables is near pre-pandemic levels, with momentum for continued improvement.



Source: Kansas City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